

소크라테스의 辯明(플라토 對話篇)(3)

柳滢基

× × ×

아텐人諸君! 이 有罪宣告가 나의 慣戀을 일으키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理由가 있다.

그 重要的 理由로는 이 宣告가 나의 벌서부터……期待하고 잇는 것인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도 少數의 差로 有罪決定이 될 줄은 몰랐는 것이다.……만일 三十票만 저리 갓던들 나는 無罪放免이 되고 나를 告發한 者들은 罰金을 내게 되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나에게 死刑을 提議하였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提議할가? 勿論내가 받아야 될 것을 提議해야 될 것이다.……나는 一生을 奔忙中에서 지나 왔다. 내가 비록 남들의 애쓰는 蓄財, 家事, 供職, 黨派에는 無關心이었으나 나는 誠心으로 아텐人士의 最大善을 위하여 專心專力으로 努力하여왔다. 特別히 저 이들에게 德과 智를 찾으라고 勸하고 가르쳤다. 나는 나의 私益을 위하여서 東奔西走하기에는 너무나 正直한사람이다.……이와 같이 自己의 利益, 家庭, 名譽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一生을 아텐市民을 위하여 힘쓴 사람에게 무엇으로 주기를 아텐人들은 提議하려는가?……死刑이냐? 아! 死刑보다는 오이려 國費養老가 可하지 아니할 것이냐? 諸君은 올림픽 勝利者에게 恩給을 준다. 그러나 諸君의 참된 幸福을 위하여 努力한 나 같은 有功者부터 먼저 恩給에 붙임이 可하지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諸君中 혹이 哀乞로 생각할런지도 모른다.……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平生에 아무도 故意로 害롭게 한 일이 없는 까닭이다. 비록 나를 告訴하는 者들과 여기 앉은 裁判官들에게 이 짧은 時間에 充分히 說明치는 못하나 나는 平生에 한 번도 남을 害롭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여둔다. 만일 아텐城에도 다른城과 같이 死刑判決은 當일에 나리지 않는다는 法律이 잇섯던들 내가 諸君에게 나의 無罪함을 證明하였을런지도 모를 것이나 지금 나의 時間은 너무도 짧다. ……내가 남을 故意로 害롭게 한일이 없음으로 나自身에게도 無罪한 것을 有罪한 것처럼

럼 無理한 罰을 提議치 아니하려한다.……

나는決코 罰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死刑? 죽음이란 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 아지 못하는 나로서 죽음을 罰로 請한다는것은 無理한일이라고 생각한다. 入獄? 나의 有罪함을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왜牢獄가운데 들어가 獄卒들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나. 罰金? 나에게는 罰金을 낼만한 돈이 없다. 流刑? 나의 平生을 두고 爲하여 일한 아토티아로서도 나의 交際와 言論을 견대지 못하여 하거든 하물며 外邦人이라. 내 나이 七十에 무슨 그리 시원한 일을 보겠다고 祖國에서 쫓겨난 늙은 몸이 이곤 저곤으로 定處없이 漂泊하며 남은 一生을 보낼 수 잇으랴. ……내가 어데를 가던지 아토티아에서와 마찬가지로 靑年들은 나를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靑年들을 다리고 智와 德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父母들이 때를 지어『靑年子弟들을 腐敗케하는 怪異한 늙은이라』하여 그 城에서 쫓아낼 것이오. 만일 靑年들을 받자하지 아니하고 본척만척한다면 그들이 그 父母들을 衝動하여 亦是 나를 그 城에서 내어 쫓을 것이다.

諸君中 혹이 말하기를『쏘크라테쓰君! 君은 여기를 떠나 他國땅에 들어서거든 입을 다치고 沈默의生活을 할 수는 없는가?』하면 내가 이 時間에 充分히 說明할 수는 없으나 德에 대하여 날마다 研究하며 討論하는 것은 生의 最大善으로 나는 생각한다. 反省이 없고 探求가 없는 生活은 無價値한 生活이다. (The life wich is unexamined is not worth living)내가 만일 呑口한다면 이는 神命을 어기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가 罰을 받아야겠다는 무슨 觀念이 나의 머리에 들어오지를 아니한다. 만일 나에게 돈이나 많았다면 罰金이나 몇푼 내자고 말하였을 것이나 나에게는 가진 돈이 없다. 罰金쯤이야 精神이나 道德上으로보아 그다지 害로울것은 없을 것이니까.……응 나의 弟子요 벗들인 플라토와……크라이토가 三十미나를 提議하라니 三十미나는 어떠할가? 나는 三十미나가 없지마는 그들이 거기 대하여서는 保證을 할 것이니까.……

(裁判官再投票有罪決定)

×

×

아토티아諸君! 이제는 긴말할時間도 없다. 다만 諸君을 誹謗하는이들이『智慧로운 쏘크라테쓰를 죽인 놈덜이라』고 惡評하리라는것만은 미리 말하여둔다. 만일 諸君이 暫間동안만 기다린다면 諸君의 願하는 바는 自然히 일우어질 것이니 諸君의 보는바와 같이 나는 임의 나이 많았으니 앞으로 살날이 그리 많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나를 有罪하다고 投票한 裁判官들에게만 하는 말

이다.……

이 가운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나 죽음에 대하여 冷情한 老人이라』고 할런지도 모른다.……그러나 나는 울며불며 살려주기를 哀乞하려고 아니한다. 나는 차라리 나의 할말(바른말)을 하고 죽는 것이 諸君의 手段(卑陋한)을 써서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낫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法律을 對할때나 戰場에 나아갈 때 죽음을 무서워하여 떨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事實 어려운 것은 죽음을 避하려는 것보다 不義를 避하는것이니 不義란 것은 죽음보다 더 速한것이다.…… 이제 나는 諸君에게 死刑宣告를 받고 退廷하며 諸君은 眞理에게 卑劣, 不正의 宣告를 받고 退廷하게 되었다. 나는 이 判決을 나의 運命으로 알고 滿足히 생각한다. 생각건대 諸君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人之將死에 그 豫言力이 가장 富하여지는것이니 이제 나는 나에게 有罪投票를 던진 이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豫言하여 두려한다. 나를 死刑에 宣告하는 諸君! 諸君의 머리 우에는 나의 받는 刑罰보다 더욱 무서운 刑罰이 나리고야 말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곧 諸君의 生活에 明白한 說明을 나리어야될 그 責任을 廻避하기위하여 賢者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卑劣한 心算은 全然히 틀리는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나보다 年少한 더욱 激烈한 哲人들이 나와서 諸君의 非行, 諸君의 無知를 나보다 몇 배나 餘地없이 酷評할 것이다. ……諸君은 諸君을 批評하는 이들을 없이어버림으로써 諸君의 批評을 免코저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淺薄한 잘못된 생각이다. ……남의 批評을 避하는 最善의 方針은 남을 壓迫하거나 埋葬하여 버리는데 잇지 않고 각각 有德한 사람이 되어 智慧로운 生活을 하는데 잇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死刑에 投票한 判官諸君에게 最終으로 들리어주는 나의 豫言이다.

이제 나를 위하여 無罪投票를던지준 여러 親舊들에게 두어말 드리려한다. ……당신들이야말로 眞正한 意味의 裁判官들이다.……나의 內心の 證據로 보아 지금 나의 받은 宣告는 그리 송없지 않은 것이다. 죽음이란 반듯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잘못이 아닌가한다. 만일 죽음이란 것이 惡이라면 나의 內心に 반듯이 神告가 잇었을 것이다.

죽음이란 惡이람보다 좋은 것이 아닐가 하는 데는 두 가지 理由가 있다. 죽음이란 全無感覺의 狀態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再生 혹 新生일것이다. 이제만 일 죽음이란 것은 꿈도 아니 꾸는 全然히 아무 感覺도 없는 夢中 같은 것이 라면 그보다 좋은 것이 또다시 어데 잇으랴. ……우리 凡人은 그만두고 帝王에게 못더라도 우리의 生活에는 깃분날 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럼으로 죽엄이란 것이 完全한 虛無, 無感覺이라면 죽엄은 곳 숭한 꿈도 없는 한긴 平安한밤일것이니 그보다 더 좋은것 이 天上天下에 또다시 어데 잇으랴.

둘재로 죽엄이란 만일 이 世上을 지나 다른 世上으로 들어가는(혹나아가는) 再生이라면 그보다 더 훌륭한 經驗이 또 어데잇으랴. 그뿐 아니라 만일 그 世上에 가서 여기 앓은 正義를 모르는 卑劣한 裁判官들보다 하늘 같이 높고 맑은 義로운 裁判官들과 前에간 親舊들과 哲人들을 맞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곳이 또 다시 어데잇으랴.

(二〇頁에續)